

비쳐 보이는데, 오빠와 자기가 태어날 때 심어졌다는 두 나무는 그 아이의 머리 위로 초록색 가지와 어린 코코넛 열매를 서로 엮어매고 있었지. 비르지니는 폴의 우애를 생각하네. 향료보다도 더 달콤하고, 샘물보다도 더 맑고, 하나로 엮힌 야자나무보다도 더 끈끈한 우애에 그 아이는 한숨을 내쉬지. 밤에 대한, 고독에 대한 상념에 잠기고,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정염의 불길이 비르지니를 사로잡네. 그러자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온 게야. 저 위험한 응달과, 무더운 열대의 햇볕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끓어오르는 저 물이 무서워져서 말이야. 비르지니는 자길 지탱해줄 사람을 찾아 엄마 곁으로 달려가네. 자기가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, 몇 번이고 엄마의 두 손을 꼭 쥐었지. 그러다 몇 번은 폴의 이름을 부르기 직전까지 갔으나, 그만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말문이 막혀, 엄마 품에 머리를 얹은 채 하는 수 없이 그저 눈물만 펄펄 흘렀다네.

라 투르 부인은 딸이 앓는 병의 원인을 간파했지만, 그걸 함부로 딸에게 말하려 들지 않았네. 그저 이렇게 말했지.

“딸아, 하느님께 의지하렴. 건강도 생명도 다 그분 뜻에 달려 있단다. 오늘 너를 시험하시는 것은 내일 보답하시기 위한 게야. 우리는 오로지 덕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려무나.”

그러는 사이 극도로 치솟은 열기에 외해에서 증기가 피어올라 마치 거대한 파라솔처럼 섬을 뒤덮었네. 산 정상을